



부자 된 한국이 행복을 누리는 길

최근 한 언론기관이 세계 10개국 5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지도(地圖)'를 조사한 결과, 세계 2위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은(49.3%) 나라는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다 (조선일보).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9점 척도)에서도 한국은 7.24로 미국(5.45)이나 일본(6.01)은 물론 최빈국인 짐바브웨(5.77)보다 높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디너 교수는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다.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평하였다.

글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부자는 행복하다?

대부분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은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나 자신'(33.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행복한 사람으로 '나'를 많이 지명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56.1%)·베트남(46.0%)·말레이시아(40.1%) 등 동남아 사람들이었다. 한국인 중에도 3분의 1은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평하였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인들은 부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부유해진 지금도 '물욕(物慾)으로 인한 피로감', '주변국의 위협',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에 지쳐 있다고 한다고 하니 모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행복과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2005년 130개국 13여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중간인 5.5점보다 약간 낮았다.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서 균형'은 130개국 중에서 116위에 불과했다.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9점 척도)에서 한국은 7.24로 미국(5.45)이나 일본(6.01)은 물론 최빈국인 짐바브웨(5.77)보다 높게 나왔다.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디너 교수는 "한국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다. 이는 한국의 낮은 행복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평하였다.

디너 교수는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돈 버는 데 신경 쓰느라 가족관계나 개인의 취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등한시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된 맨 바닥에서 기적처럼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 이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가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로 성장하였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교 대상국 가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변신한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자 하며 경제발전의 모범국가로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행복을 구가할 단계가 온 것이 아닌가? 사실, 세

계 어느 국가에 가보아도 우리나라만큼 풍성하게 살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우리 국민소득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집 할부금을 갚는데 대부분이 들어가고 세금이 높아 실제 가정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돈을 제법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가?

왜, 아직도 물질인가?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에는 별 걱정이 없었다. 지금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을 할 것이고, 월급은 계속 올라갈 터이니, 중년이 되면 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낙관적 생각에 경고를 받은 것이 90년대 말 외환 위기였다. 기업은 외채를 차입해서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써 허세를 부렸고, 국민들도 카드빚을 내어 과소비를 했다. 수출이 되지 않자 외채를 들어왔고, 나중에는 급전까지 끌어다 메웠다. 그러다 보니 외채 규모가 2년마다 배로 늘어났고, 1997년에는 우리나라에 달려가 거의 바닥 수준이었기에 나라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받고, 경제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는 말씀처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환율 조정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돈으로 해결한 경제 위기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기업은 과감한 구조 조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자와 노숙자가 늘어났고 소비는 위축되게 되었다.

이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실직하고 가계가 파탄되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깨닫게 되었다. 믿었던 직장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

그런데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나타났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맘몬이즘, 배금주의, 향락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또다시 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기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다. 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벤처 투자 열풍에 덧붙여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선 거의 두 배씩 올랐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자극하였고, 지방이나 투기과열 지구 이외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불만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불안하고 여기저기서 돈 번다고 하자 나도 뭔가 해보자, 뭐든지 한몫을 잡아야 한다는 식이 된 것이다. 이러한 조급함, 불안함이 부에 대한 열망, 부자들을 모방하는 과소비를 부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맘몬이즘, 배금주의, 향락주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또다시 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기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다.

20:80의 사회

앞으로는 '20:80의 사회'가 된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소득 분포가 항아리 형이었다. 즉 위가 부유층, 아래가 빈곤층, 가운데가 중산층으로 가운데가 넓게 퍼져 있는 항아리형 모양이다. 중산층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모양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래시계'형으로 바뀐다고 한다. 중산층이 잘록해지고 부유층과 빈곤층이 늘어나 위 아래로 양극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중산층은 줄어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

미래학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빈곤층의 비율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원래 모래시계는 위와 아래의 크기가 비슷한 50:50이지만, 앞으로의 소득분포는 위가 20, 아래가 80이 되어 빈곤층이 80%를 차지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거나 중산층을 지향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 앞으로가 더 위험한 것이다.



“행복이 물질적 소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평안이다. 재물은 일시적인 편안함(comfortable)을 주지만, 평안(peace)은 없다.”

돈의 유용성과 위험을 바로 알아야

이제 돈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 돈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돈의 유용과 위험성,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잘 알고 활용하여야 한다. 현대인의 가장 큰 터부가 돈과 성이라고 한다. 성이나 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을 숨기고 쉬쉬하고 터부시하다 보니 오�히려 왜곡되고 부분적인 정보가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음담패설, 돈을 한탕 해먹은 이야기 등이 방송매체에 흔히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성행하다 보니 성에 대해서도 굴절된 모습이 나타나고, 돈에 대해서도 한탕주의, 과소비 등의 왜곡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건전한 소비와 투자 생활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배워야 한다. 돈에 무지한 돈맹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의 길

경제학에서는 “행복 = 소비/욕망”, 즉 소비수준을 욕망으로 나눈 값을 행복으로 정의한다. 즉, 많은 소비 또는 고급 소비를 하면 물질적 행복이 증가하고, 분모인 욕망이 낮으면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정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수준을 무한정 늘일 수는 없다. 또한 소비를 마냥 늘인다고 하여 행복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배가 고플 때 한 그릇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두 그릇을 먹으면 더 행복하지만 한 그릇 때보다는 적게는다. 세 그릇, 네 그릇을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나 행복도가 감소하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한계 효용(한 그릇 먹을 때마다 늘어나는 행복의 정도)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행복도를 높이는 다른 방법은 분모인 우리의 욕망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에 매여 있지 않은지 늘 민감해야 한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딤후 6:8)고 말씀한다. 적은 물질이라도 만족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딤후 6:6).

그런데 다시 주목할 것은 행복이 물질적 소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물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벗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다. 특히 불안감에서 벗어나 행복의 상태에 이르려면 마음이 여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는 남에게 베풀 때 얻을 수 있게 된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평안이다. 재물은 일시적인 편안함(comfortable)을 주지만, 평안(peace)은 없다.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의 평안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미치는 영원한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 이 글은 좌측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www.worldview.or.kr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